

# 호랑이 투·타 재정비...상승세 롯데 꺾는다



양현종

## T 타이거즈 전망대

‘다승 1위’ 양현종이 연패 탈출 임무를 맡았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롯데 자이언츠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즌 13차전을 벌인다. ‘연패 탈출’이 롯데와의 경기를 앞둔 KIA의 키워드다.

KIA는 2연승 뒤 3연패를 기록하면서 갈 길이 바빠졌다. 안방에서 NC 다이노스 전 2승을 건진 KIA는 ‘1위 굳히기’를 외치며 올라간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에 2연패를 당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리고 SK 와이번스에 1-13의 대패를 당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3경기에서 3점을 만든 타격 부진과 선발진 공백이 겹치면서 2위 두산과는 5.5게임차가 됐다.

1위 독주를 이어오고 있는 KIA는 올 시즌 4연패가 없다. 위기는 있었지만 꾸준히 승리를 쌓으면서 지켜온 1위다.

20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양현종이 이틀을 더 쉬고 ‘연패 탈출’을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롯데전 연패 탈출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겨냥한다.

3경기 3점 빈타 허덕...선발 공백에 3연패

롯데 최근 5승1패 등 후반기 승률 6할 넘어

‘스윙패 악몽’ 탈출 위해 에이스 양현종 출격

KIA는 7월 21일부터 열린 롯데와의 홈 3연전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하면서 휘황거렸다. 그것도 양현종-팻딘-헛타라는 선발진이 줄줄이 출격하고도 당한 스윙패라서 충격은 더 컸다.

앞선 3연패를 끊어야 하는 설욕전이지만 최근 롯데의 기세를 보면 쉽지 않은 경기로 예상된다.

롯데는 지난주 5승 1패의 성적을 내며 ‘가을 잔치’의 불씨를 살렸다.

롯데는 후반기 두산(0.759·22승 7패 1무)에 이어 승률 0.643(18승 10패 1무)의 신바람 행진을 하면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득점권에서 0.288(공동 2위)의 타율을 보이며 18승 중 15승을 역전 승으로 장식했다. 앞선 싹쓸이 3연승으로 KIA전 자신감도 넘친다.

롯데의 상승세를 잠재워야 하는 양현종은 개인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다. 22일 경기에서 4명의 타자를 더 상대하면 6000타

자 상대 기록이 채워진다. 통산 28번째 기록이다.

타석에서는 ‘FA 4’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긴 슬럼프에 빠진 이범호의 타석이 KIA의 표정을 바꿀 전망이다.

이범호는 지난 3일 kt전서 개인 통산 299번째 홈런을 터트린 뒤 ‘아홉 수’에 빠진 모양새다. 이범호의 최근 10경기 타율은 0.138(29타수 4안타)에 불과하다. 3개의 볼넷을 끌라내는 동안 삼진은 6차례 당하는 등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부진으로 자신의 기록도 답보상태. 통산 9번째 300홈런에 여전히 하나가 부족하고, 1600안타(-4안타·통산 23번째)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나지완도 지난주 12타수 2안타로 0.167의 타율을 기록했다. 특유의 선구안도 살리지 못하는 등 방망이가 잇달아 헛돌면서 볼넷 하나 없이 삼진 5개만 적었다.

## ■ 2017 KBO리그 팀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10	69	1	40	0.633	0.0
2	두산	112	64	2	46	0.582	5.5
3	NC	114	64	1	49	0.566	7.0
4	LG	108	56	1	51	0.523	12.0
5	롯데	115	59	2	54	0.522	12.0
6	넥센	115	59	1	55	0.518	12.5
7	SK	116	58	1	57	0.504	14.0
8	한화	111	46	1	64	0.418	23.5
9	삼성	114	45	4	65	0.409	24.5
10	kt	111	36	0	75	0.324	34.0

이범호와 나지완의 반전이 필요한 공격. 김주찬과 최형우는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

김주찬은 통산 18번째 900득점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고, 최형우도 150안타를 향해 가고 있다. 최형우는 앞으로 5개의 안타를 더하면 LG 박용택에 이어 5년 연속 150안타라는 꾸준하고 강렬한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한편 롯데와 홈 2연전을 치르는 KIA는 이후 대전-마산으로 이어지는 원정길에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챔피언스필드 등 5곳

### 내일 ‘야구의 날’ 이벤트

KBO(한국야구위원회)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3일 ‘야구의 날’을 맞아 전국 5개 구장에서 공동 이벤트를 진행한다.

야구의 날은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8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09년 이후 올해로 9주년을 맞는다. 경기에 앞서 사인회가 진행되고, 선수단은 기념 패치를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를 한다.

팬 사인회는 올해 경기가 열리는 광주(롯데-KIA), 잠실(NC-LG), 문학(두산-SK), 수원(한화-kt), 고척(삼성-넥센)에서 열린다.

홈팀과 원정팀 각 2명의 선수가 참가해 팬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광주에서는 심동섭·김윤동(이상 KIA), 나경민·김원중(이상 롯데)이 사인회에 참가한다.

또 10개 구단 선수단 전원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야구공 모양을 형상화한 기념 로고 패치를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세계 수영 4위 안세현

### 2017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 향해 뚝

#### 3주 휴식 끝 훈련 재개

‘세계 4위’에 오르며 한국 수영사를 새로 쓴 안세현(22·SK텔레콤·사진)이 다시 물살을 가르든다. 이제 그의 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다.

안세현은 21일 울산스포츠과학고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항구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이날 1일 귀국한 안세현은 약 3주간 끝말 같은 휴식 시간을 가졌다.

안세현은 지난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100m와 200m에서 한국 수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접영 100m에서는 준결승(57초15)에 이어 결승(57초07)에서 잇달아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5위에 올랐다. 접영 200m에서도 결승에 올라 7년 동안 깨지지 않던 한국 기록을 2분 06초67로 새로 쓰면서 4위를 차지, 한국 여자 선수 역대 최고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 안세현은 내년 8월 18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리는 2018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다시 뚝뚝이다. 안세현에게는 훈련의 연속이다.

오는 10월 20~26일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뒤 바로 호주로 떠나 40여 일 동안 전담지도자 마이클 불(호주) 코치의 지휘 아래 훈련한다. 이어 12월 9~15일 호주에서 열린 2017 맥도널드 퀸즐랜드 챔피언십에 출전해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서 돌아온다.

안세현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다시 호주로 건너가 담금질을 이어간 뒤 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 일정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내년 5~6월부터는 인도네시아 인근 국가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다가 결전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안세현은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출전 종목 모두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다. 한국 여자 경쟁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3관왕, 1986년 서울 대회 2관왕을 차지한 ‘아시아의 인어’ 최운희를 시작으로 1998년 방콕 대회 조희연에 이어 2010년 광주 대회 정다래 등 세 명뿐이다.

/연합뉴스



## 여기는 타이베이...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한미진 유도 금메달 20일(한국시간) 타이베이 신주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한미진(왼쪽)이 산타 파케니테(리투아니아)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양궁 최미선, 리커브 예선 687점 세계新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광주여대)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고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새로 썼다.

최미선은 지난 20일 열린 리커브 예선에서 687점을 기록,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기보배(광주광역시청)가 세운 기록 686점을 1점 경신했다.

최미선은 “독일 베를린 양궁 월드컵 이후 곧바로 참가해 피곤하기도 하고 컨디션 걱정도 됐는데 날씨가 한국과 비슷해 적응해 큰 문제가 없었다”며 “끝까지 경기를 잘해서 우승하겠다”고 밝혔다.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광주여대)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고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새로 썼다. 사진은 최미선의 세계신기록 기사가 올라 온 세계양궁연맹 홈페이지. /연합뉴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코요태스텐보이즈)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신기록인 689점을 기록하는 등 남녀 리커브 예선 1~3위를 모두 한국 선수들이 휩쓸었다.

남녀 리커브 단체전도 유니버시아드 신기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한국은 혼성팀을 포함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10개 전 종목에서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우하람·김영남 47년만에 다이빙 원정 銅

### 남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

‘한국 다이빙의 미래’ 우하람(19)과 김영남(21)이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우하람·김영남 조는 지난 20일 대만 타이베이 대회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411.9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현일명·리현주(북한)가 410.70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우하람과 김영남의 동메달은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송재용 이후 47년 만에 나온 한국 다이빙 원정 메달



우하람과 김영남이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남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사진은 한국 다이빙팀 김영남(앞줄 왼쪽), 김수지(앞줄 가운데), 우하람(뒷줄 오른쪽)이 시상식 후 북한선수단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다. 2012년 이후 6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우하람과 김영남은 지난달 국제수영연맹(FINA)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결승에서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여자 개인혼영 400m에 출전한 김서영(23)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